

# 중앙대, '인공지능 사회' 주제 국내학술대회 연다

황혜원 기자 | 승인 2022.06.20 17:49

## 24일 중앙대 HK+인문콘텐츠연구소 주최,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변화·미래방향 조명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중앙대학교는 오는 24일 '인공지능(AI) 사회'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사회'를 주제로 한다.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변화들이 조명된다. 또한 AI 기술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다.

학술대회 1부는 놀이 기반 AI 스토리텔링 교육연구, 메타버스 시대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행동강령을 다룬다.

2부에서는 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신체들, 포스트 휴먼 시대 시의 비주체와 정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AI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을 주제로 진행되는 3부 이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포스트 휴먼 시대 인문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인문학을 어젠다로 HK+(인문한국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학술대회, VR 활용 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인문학 교육 사업 등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찬규 HK+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AI 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와 문화, 역사, 교육 등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AI가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 AI의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HK+인문콘텐츠 연구소 홈페이지(aihumanities.org/aih202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 인공지능 사회

일시 2022년 6월 24일(금) 13:00-18:00

장소 비대면 (Zoom) 개최

사회 박소영(중앙대), 김바로(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평중(중앙대)

개회사 이찬규(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장)

발표 | 토론

놀이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 연구 - 김재웅(중앙대) | 이기성(중앙대)

메타버스시대 발생가능한 사회적 이슈 및 이용자 행동강령 - 이현정(중앙대) | 강지영(단국대)

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신체들 - 김민선(가천대) | 유인혁(서울시립대)

포스트휴먼 시대의 비주체와 정동 - 공현진(남서울대) | 황선희(중앙대)

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 - 박진호(고려대) | 김태균(코탁스 대표이사)

종합토론

주최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자료=중앙대 제공



황혜원 기자 yellow@dhnews.co.kr

